

부산 백병원 호스피스

▶ 호스피스 활동의 목적

좋은 죽음을 위하여 환자가 죽음의 그날까지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환자가 겪게되는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임종의 날까지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영원한 삶을 평안하게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 연혁

- 1999. 4.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 1999. 4.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창립
- 1999. 5.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월교육(매월 첫 목요일)
- 1999. 9.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월피정

▶ 규모

부산백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병원 사정상 별도로 두지는 않지만 10A 병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직원 7명 (조정자, 내과 의사, 간호사, 정신과 의사, 약사, 임상심리사, 사회사업가, 영양사, 원목자, 자원봉사자 30명)이 활동하고 있다.

▶ 활동

10A 병동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 (1999.4)한 이래 금년(2000년) 2월까지 호스피스 대상자가 51명중 28명이 병동에서 임종하고 3명은 자택에서 임종했다. 평균 입원일은 15-30일이며 증상이 조절되면 퇴원시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 재입원 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루 평균 3-5명 방문하여 얼마남지 않은 여생동안 인



간으로서 소중함과 자존심의 삶을 유지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도와주며 사별 후 가족들의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공감하며, 침체된 가족들의 마음을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한다.

▶ 설립 배경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많은 중환자와 말기 질환자, 암환자를 치료해 오던 중 병원의 요청에 의하여 부산교구 이갑수 주교님께서 1994년에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를 파견하시어 원목을 하다보니 호스피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간호부에서는 3년동안 호스피스 준비를 하여 1998년부터 5명의 호스피스 봉사자가 암환자들을 돌보다가 1999년 4월 70명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수료후 40명은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고, 30명은 호스피스 봉사자로 지금 현재 활동중이다.

연락처: 부산시 진구 개금동 633-165
 부산 백병원 가톨릭 원목실.
 정 로사리아 수녀
 Tel. 051. 890-6699, 896-3861